

## 윤여정, 한국배우 사상 첫 美아카데미 여우조연상 74세 미나리같은 여배우 '기적의 꽃' 활짝 피우다

굴곡진 삶 이겨내고 큰 별로  
온기있는 연기, 세계가 극찬  
아시아인·여성·74세 수상 등  
아카데미에도 신선한 충격과  
꽃 가디언 '아카데미의 챔피언'

“아카데미의 진짜 챔피언!(What a Champion)”  
(영국 가디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지만, 실제 영광의 순간에 가슴 벅찬 표정이 드러났다. 자신이 마침내 한국배우 최초의 기록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상기됐다.

배우 윤여정이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한국배우 최초의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고 내놓은 거침없고 유머러스한 소감에 전 세계 시청자와 관객도 환호했다. 74세 노년의 배우가 힘겨운 시대의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1966년 데뷔 이후 55년 동안 이어온 연기 인생에서 그 자신, 정점에 오른 순간이었다. 작품·감독·남우주연·각본·음악상 등에 후보로 오른 '미나리'가 수상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달랐다.

### ●“복합적인 유리천장 깨다”

윤여정은 1957년 '사요나라'의 일본 출신 우메키 미요시에 이어 아시아권 배우 두 번째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미나리'의 제작자이자 배우 브래드 피트로부터 호명된 그는 차분히 무대로 나아갔다. 그는 “한국에서 온 윤여정”이라고 소개하고 “늘 TV로만 보던 무대에 직접 올라 믿을 수 없다”며 감격해 했다. 이어 “영화를 찍으며 가족이 된 스티븐(연), 정이삭 감독, 한여리, 노엘 등 우리 팀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여정은 이들과 함께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인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연기했다. 뒷줄지만 따스한 가족애를 드러내며 한국적 정서 가득한 캐릭터로 해외 관객에게 신

선함을 안겼다. 최근 미국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등 품에 안은 42개의 트로피가 이를 입증한다.

평단은 윤여정이 “복합적인 '유리천장'을 깬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아시아인이자 여성, 게다가 70대의 나이로 수상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아카데미 역사에도 분명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여정의 개성 강한 연기가 얻어낸 성과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 평론가는 “함께 후보에 오른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도 할머니 역이었지만, 전 형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순자에게 화투를 가르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미나리'의 윤여정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미나리'를 공식 초청해 선보였던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수석프로그램에도 “영화의 따스한 온기가 윤여정의 연기를 통해 증폭됐다”고 밝혔다.

### ●“아시아 배우의 역사를 다시 쓰다”

앞서 윤여정의 수상을 예측한 외신들도 높은 점수를 줬다. 미국 LA타임스는 윤여정이 “60여년 만에 아시아 배우 수상의 역사를 썼다”고, 뉴욕타임스는 “영국 아카데미에 이어 또 다시 유쾌한 수상 소감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 등도 “미국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 수상 이후 '뱅크'의 어맨다 사이프리트,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등을 제칠 강력한 후보로 꼽혀왔다”고 되짚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의 후배들도 축하의 대열에 나섰다. 이날 김혜수·이병헌·전도연 등 적지 않은 배우들이 SNS 등을 통해 윤여정에게 박수를 보냈다. 2017년 미국드라마 '하일랜드'에서 윤여정과 호흡을 맞췄던 샌드라 오를 비롯해 아파피나, 다니엘 대 김 등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배우들도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여정에게 축전을 보내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낸 윤여정의 연기가 너무나 빛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면

유혜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윤여정이 척박한 토양 위에서도 질기게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먹고 살려고 연기’한 신산했던 55년의 성취를 맞았다. 2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그가 트로피를 받쳐 들고 활하게 웃고 있다. 그의 수상은 한국배우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다. LA(미국) AP·뉴스

**윤여정** ▲1947년 6월19일 서울 출생 ▲1966년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입학, TBC(동양방송) 공채 탤런트 3기 ▲1967년 드라마 '미스터 공' 첫 주연 ▲1971년 영화 '화녀'로 스크린 데뷔, 스페인 시체스극제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대중상 신인상·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1971년 MBC 드라마 '장희빈'·역대 첫 장희빈 캐릭터 ▲1972년 영화 '춘녀' 등 ▲1973년 12월 미국행 ▲1984년 귀국, MBC '베스트셀러극장-고길' 편 복귀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등 다양한 드라마 주조연 ▲2000년대 이후 영화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여배우들' '돈의 맛' '하녀' '죽여주는 여자' 등 독특한 노년 캐릭터 구현 ▲2015년 라나·릴리 위소스키 자매 감독의 미국드라마 '센스8' ▲2021년 미국 애플TV+ 드라마 '파친코' 주연

#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질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원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텐가미솔 1개  
상담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2021.01.01 ~ 2021.12.31]  
• 접수 후 가입 안내 최소 5분 이상 상담 시 (이벤트만 제공)  
• 배송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 (1인 1회 한정)  
• 행사사은품 지급 (누적금액 초과시 지급 제외)  
• 본 상품은 소비자기가 기본 30일만을 추후해지 않음  
• 조기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 가입 후 30일 이내 보험금 수령 시 1회(보험가입 1년 이내) 건강검진 90% 보장 \* 10년 장기 갹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단(가입금액이 없는 손수보험금 제외) \* 이 보험계약은 (해당보험회사가 보장하지) 보험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의료보험대상 금융상환의 (해당보험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시고보험금에 가산지급금을 합하여 1년(1) 최고 50만원이며 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충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만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충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망력자 및 고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한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울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 A/S센터로 문의주세요